금융

Sector Issue Brief 2025. 05. 13

Check Point

- 금융업종 관련 대선공약 점검
- 증권업에 가장 우호적 정책기조
- 은행/보험업종 일부 불확실성 상존

대선 공약 관련 내용 점검

| Analyst **전배승** | bsjun@ls-sec.co.kr

금융업종별 대선 공약 관련 내용 점검

▶ 전일 주요 정당 대선후보는 10대 공약을 발표. 주요 후보 모두 경제성장 관련 공약이 우선순위를 차지한 가운데, 현재 가장 지지율이 높은 이재명 후보의 금융업종 관련 공약내용을 점검

▶ 은행업 관련 공약은 3호(경제/산업부문: 가계/소상공인 활력증진 및 공정경제 실현) 내용에 포함되며 코로나 정책자금 대출에 대한 채무조정, 소상공인 금융지원, 가산금리 산정기준 법제화 등이 포함됨. 과거 상생금융과 유사한 형태의 취약차주 정책지원을 예상해 볼 수 있으며, 언론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은 조단위의 '서민금융안정기금(가칭)' 설치를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내수 경기 부진에 따른 은행권의 일정부분 공공역할이 예상됨

▶ 증권업 및 주식시장 관련 공약은 이재명 후보가 기존 표방한 증시부양 및 상법개정 관련 내용이 주류를 이룸. 국내증시에 대한 저평가인식을 바탕으로 기업구조 투명성과 소액주주 보호, 불공정한 주식시장 관행철폐 등을 강조. 또한 자사주소각 의무화,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등 밸류업 기조와 맞물린 정책 방향성 제시

▶ 보험업종 관련 공약은 상대적으로 두드러지는 부분이 없으며 보건/의료/복지 관련 공약내용에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확보,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지원방안 등에 간접적으로 포함. 이재명 후보는 과거부터 보험회사 보다는 보험소비자 입장을 중시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건강보험 개혁(실손보험 포함)의 경우 현 정부와의 차별성 여부가 관건. 노령층을 위한 의료/간병서비스 확대기회는 시니어보험의 추가성장 기회로 작용할 전망

증권업에 우호적 정책기조. 은행/보험업종 일부 정책 불확실성 상존

▶ 이재명 후보의 금융업종 관련 공약 내용은 주주환원 강화와 증시부양이 포함되며 증권업에 가장 긍정적 영향이 예상됨. 최근 증권주의 가파른 상승 또한 이를 반영. 자사주 비중이 높은 증권주의 상승 폭이 더욱 크게 나타남

▶ 은행권의 경우 공공역할 관련 일회성 비용소요 보다는 가산금리 억제 등 가격규제 영향이 보다 크게 나타날 전망. 현재 예보료/출연료 가운데 어느 정도 비율이 대출금리에 포함되었는지 파악하기는 힘드나, 10~30% 수준 가정 시 세전이익 5~10% 감소요인으로 작용

▶ 보험업종 관련해서는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비급여/실손보험 개혁논의 방향성이 관건. 보험소비자의 권리 제한 이슈가 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고, 의료업계와도 현 정부와 다른 방향성을 설정할 가능성이 있어 일부 정책 불확실성 상존

그림1 이재명 대선후보 금융업종 관련 공약내용 정리

금융업종별	공약 분야	내용
은행	경제·산업	○ **코로나 정책자금 대출에 대한 채무조정부터 탕감까지 종합방안 마련** ○ 12.3 비상계엄으로 인한 피해 소상공인 지원방안 마련 ○ 소상공인 금융과 경영부담 완화 - 저금리 대환대출 등 정책자금 확대 및 키오스크 등 각종 수수료 부담 완화 ○ 대환대출 활성화 및 중도상환수수료 단계적 감면 등 대출상환 부담 완화 ○ 취약계층에 대한 중금리대출 전문 인터넷은행 추진 ○ **가산금리 산정시 법적비용의 금융소비자 부당전가 방지로 원리금상환부담 경감** ○ 채무자 중심의 보호체계 구축 및 사각지대 해소 - 장기소액연체채권 소각 등을 위한 배드뱅크 설치 - 특별감면제·상환유예제 등 청산형 채무조정 적용 확대
증권 (주식시장)	경제·산업	○ **주식시장 수급여건 개선 및 유동성 확충** - 상장기업 특성에 따른 주식시장 재편 및 주주환원 강화 - 외국인 투자자 유입 확대를 위한 제도 정비 및 MSCI 선진국지수 편입 적극 추진 ○ **상법상 주주충실 의무 도입 등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일반주주의 권익 보호** ○ **자본·손익거래 등을 위한 지배주주의 사익편취 행위 근절** ○ **먹튀·시세조종 근절로 공정한 시장질서 창출** ○ 디지털자산 생태계 정비를 위한 산업육성기반 마련
보험	사법·행정·보건·의료	○ 국민참여 의료개혁으로 의료대란 해결,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확보** - '국민참여형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로 국민이 원하는 진짜 의료개혁 추진 - 보건의료 전문직역들의 상호협력체계 강화 및 적정인력 확보 - **건강보험에 대한 안정적인 국고지원 및 수가보상체계의 합리적 개편** - 대상별·질환별 특성 고려한 보장성 확대로 의료비 절감과 질병 예방 - 희귀·난치 질환 부담 완화와 소아비만·소아당뇨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교육·복지	○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통합적 지원체계 마련** - 치매·장애 등으로 재산 관리가 어려운 노인을 위한 공공신탁제도 도입 - 어르신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고령자 친화 주택·은퇴자 도시 조성 -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및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 **노인 등이 집에서 의료·돌봄서비스를 받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체계 구축**

자료: 언론보도

그림2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관련 민주당 발의 내용

구분	현행 제도	개정안 제안 내용	비고
적용 대상	모든 상장법인	배당성향 35% 이상 상장 법인	
과세 방식	종합소득 합산 과세	**종합소득에서 분리 과세**	**- 2,000만원 초과 시 종합소득 합산 폐지** **- 배당성향 35% 미만 기업은 기존 방식 유지**
세율 체계 (이자소득+배당소득)	- 2,000만원 이하:15% - 2,000만원 초과: 종합소득 합산 과세 (최고세율 49.5%)	**계층별 차등 세율:** **- 2,000만원 이하: 15%** **- 2,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22%** **- 3억원 초과: 27.5%**	
입법 목적	- 대주주·경영층의 저배당 유인 - 개인투자자의 단기 매매 차익 선호	**- 고배당 기업 유도를 통한 주식시장 활성화** **- 장기 배당투자 촉진**	- 국내 상장사 평균 배당성향 26~27% → **35% 이상 목표**
기대효과	- 이중과세 논란 지속 - 코리아 디스카운트 심화	- 외국인·개인투자자 유입 증가 - 기업의 주주환원 확대 → 시가총액 상승	

자료: 언론보도

그림3 **예보료/출연료 대출금리 제외 시 영향 추정**

	은행 예보료/출연료 등 (24년)	가산금리 산정시 제외분 예상규모(예보료/출연료 대비)			지주 세전이익 (24년)	지주 세전이익대비 % (예보료/출연료 대비 비중별)		
		10%	30%	50%		10%	30%	50%
KB금융	1,238.9	124	372	619	6,985	1.8	5.3	8.9
신한지주	1,320.8	132	396	660	6,124	2.2	6.5	10.8
하나금융	1,314.8	131	394	657	5,052	2.6	7.8	13.0
우리금융	1,365.1	137	410	683	4,223	3.2	9.7	16.2
기업은행	806.8	81	242	403	3,594	2.2	6.7	11.2
JB금융	196.3	20	59	98	908	2.2	6.5	10.8
BNK금융	414.1	41	124	207	1,091	3.8	11.4	19.0
DGB금융	238.1	24	71	119	261	9.1	27.4	45.7

자료: 언론보도

LS증권 리서치

Compliance Notice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작성자: 전배승).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본부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될 수 없습니다.

_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당사에서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투자등급 및 적용 기준

구분	투자등급 guide line (투자기간 6~12 개월)	투자등급	적용기준 (향후 12 개월)	투자의견 비율	비고
Sector (업종)	시가총액 대비 업종 비중 기준 투자등급 3 단계	Overweight (비중확대) Neutral (중립) Underweight (비중축소)			
Company (기업)	절대수익률 기준 투자등급 3 단계	Buy (매수) Hold (보유) Sell (매도)	+15% 이상 기대 -15% ~ +15% -15% 이하 기대	91.7% 8.3%	2018 년 10 월 25 일부터 당사 투자등급 적용기준이 기존 ±15%로 변경
		합계		100.0%	투자의견 비율은 2024. 04. 01 ~ 2025. 03. 31 당사 리서치센터의 의견공표 종목들의 맨마지막 공표의견을 기준으로 한 투자등급별 비중임 (최근 1 년간 누적 기준. 분기별 갱신)